

‘3연승’ 아이스 하키 “월드챔피언십 가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1그룹 3차전

백지선호, 헝가리에 3-1 역전승

1승만 더 하면 ‘꿈의 무대’ 진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헝가리에 역전승을 거두고 거침없는 3연승을 달렸다. ‘꿈의 무대’인 월드컵챔피언십으로 가는 ‘8부 능선’을 넘었다.

백지선(50·미국명 짐 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이하 한국시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팰리스 오브 스포츠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17 국제 아이스하키연맹(IIHF) 남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2부리그) 3차전에서 헝가리를 3-1(0-0 1-1 2-0)로 꺾었다.

한국은 0-1로 뒤진 2피리어드에서 김기성-상욱 형제의 합작 골로 동점을 만든 뒤 3피리어드에서 신상훈-상우 형제가 차례로 역전 골에 이어 쐐기 골을 터트렸다. 골리 맷 달튼은 22세이브로 3경기 연속 ‘선방 쇼’를 이어가며 든든하게 뒷문을 지켰다.

1차전 폴란드(4-2승)에 이어 2차전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카자흐스탄에 5-2 역전승을 거둔 한국은 헝가리마저 제압하고 3연승(승점 9점)으로 월드컵챔피언십(1부리그) 승격을 목전에 뒀다.

반면 헝가리는 1승 2패(승점 3점)로 사실상 월드컵챔피언십 승격이 좌절됐다.

28일 오스트리아, 29일 우크라이나와 맞붙는 한국은 남은 두 경기 중 한 경기만 승리하면 사상 처음으로 ‘꿈의 무대’인 월드컵챔피언십을 밟는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랭킹 23위인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16위), 오스트리아(17위), 헝가리(19위), 폴란드(20위), 우크라이나(22위) 등 총 6개국이 출전했다.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1-2위 팀은 2018년 덴마크에서 열리는 IIHF 월드컵챔피언십(1부리그)으로 승격하고, 최하위 팀은 디비전 1 그룹 B(3부리그)로 강등된다.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헝가리에 2승 1무 12패로 절대 열세였으나 카자흐스탄을 ‘12전 13기’ 끝에 꺾고 새로운 역사를 쓴 대표팀의 기세 앞에서는 무의미한 과거였다.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헝가리에 3-1로 역전승을 거두고 거침없는 3연승을 달렸다. ‘꿈의 무대’인 월드컵챔피언십으로 가는 ‘8부 능선’을 넘었다. 대표팀이 승리한 뒤 좋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가고... 더 막고... KIA ‘한 루’서 답 찾다

포수·야수들 특급 송구로 실점 막고... 빠른 발·재치있는 주루로 득점 기회 높여



‘한 루’에서 답을 찾다 KIA 타이거즈다.

KIA 김기태 감독이 부임 이후 선수단에 강조한 것 중 하나는 ‘한 루’다. 수비 때 ‘한 루’를 막고, 공격 때는 ‘한 루’라도 더 진출하면서 실점 확률은 낮추고 득점 확률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부임 세 번째 시즌 ‘한 루’의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특급 송구의 포수 김민식과 부지런히 뛰는 야수들이 있기 때문이다.

개막 후 세 번째 주는 KIA의 세밀함을 점검받는 시험대였다. 화려한 타격만큼이나 뛰는 야구로 KIA를 괴롭혀 왔던 두산에 이어 넥센과의 첫 만남이 준비된 것이다.

두산과의 첫 대결이었던 11일 잠실 경기에서 KIA는 4-16으로 대패를 당하면서 ‘열세 만화’에 실패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KIA는 이후 두산전 위닝 시리즈에 이어 안방에서 만난 넥센에는 싸늘이 3연승을 거두며 말린 전력을 보여줬다.

특히 KIA는 14일 팻딘의 완투승으로 2013년 5월 5일 이후 1440일 만에 단독 1위 자리에 올랐고, 15일에는 5-2 승리로 2002년 이후 15년 만에 10승에 선착했다.

난적의 발을 묶은 ‘한 루’ 싸움의 승리였다. 12일 KIA는 김선빈과 베나디나가 도루를 기록했지만 두산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했다. 13일에는 두산의 대표적인 호타준족 민병현이 1회부터 도루 실패로 물러났다. KIA의 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베나디나의 어깨와 함께 승리로 막을 내렸다.

4-2의 아슬아슬한 리드로 시작된 9회말. 한승혁이 볼넷으로 선두타자 허경민을 내보낸 뒤 김민태의 타구가 좌중간을 갈랐다. 그 사이 허경민이 홈에 들어오면서 4-3. KIA의 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았지만 2루로 향한 타자 주자 김민태가 아웃이 됐다. 중견수 베나디나가 특급 송구로 한 루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아웃카운트까지 만들어낸 것이다. 귀중

한 아웃카운트와 함께 KIA는 이날 4-3의 승리를 거뒀다.

넥센과의 3연전에도 KIA는 5개의 도루를 만들었지만 넥센은 단 하나의 도루를 성공하는데 그쳤다. 그것도 오심으로 기록된 박동원의 도루였다. ‘한 루’를 통해 KIA와의 뒷심 싸움에서 번번이 승자가 됐던 넥센은 결국 2-3, 2-5, 6-7의 패를 당하고 돌아갔다.

포수 김민식과 중견수 베나디나를 중심으로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수비가 상대의 진루 확률을 낮추고 있다. 베나디나는 공격 댄 스피드를 발휘하며 25일 현재 8개의 도루로 이대형(kt·6개)을 따돌리고 도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팀 도루도 18개로 공동 2위 두산·LG(17개)에 앞서 있다.

부지런한 질주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앞서 김주찬의 컨디션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대타 요원으로 대기하고 있다”며 “타격이 안 맞으니까 발로 열심히 뛰면서 역할을 하더라”며 웃었다.

‘신입 호랑이’ 이명기도 부지런히 뛰며 한 루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김 감독은 “열심히 뛰더라. (그라운드 홈런을 치고 들어와서도) 괜찮다고 하더라”며 선수들의 부지런한 질주에 만족감을 보였다.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재치로 스피드를 만화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5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나온 이범호의 주루가 그랬다.

0-2로 뒤진 2회말 최형우의 볼넷에 이어 이범호의 우전안타로 무사 1-2루. 안치홍의 2루수 앞 땅볼이 나왔다. 최형우가 3루로 향했고, 이범호는 2루 근처로 접근해 잠시 상황을 살폈다. 2루 베이스 근처에서 공을 잡은 삼성 조동찬은 안치홍의 빠른 발을 의식해 1루로 공을 던졌고 그 사이 이범호는 2루에 안착했다. 보통의 주루 플레이였다면 1사 1-3루로 다음 공격이 전개됐을 상황이었다. 이범호의 재치로 분위기를 끌어온 KIA는 이후 서동욱의 적시타로 동점에 성공했고 11-3 완승을 거뒀다.

KIA가 빠른 수비 전개와 강한 어깨 그리고 재치를 묶어 ‘한 루’ 싸움을 통해 승리를 쌓아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베나디나

아마야구에 6천만원 용품 지원

KIA 타이거즈가 지역 아마 야구 발전을 위해 6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했다.

KIA는 최근 광주, 전남·북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7개교에 4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또 지역 유소년 야구 활성화와 선수 육성 업무를 맡고 있는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 야구소프트볼협회에도 2000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지원했다.

야구용품은 야구공·배트·포수장비 등 팀별로 필요한 물품을 확인, 다양하게 지원했다.

KIA 구단 관계자는 “호남권 유소년 야구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야구용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용품 지원 외에도 매년 KIA타이거즈 기초·중등학교 야구 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아마 추어 야구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삼성 켈러 심동섭 “형우 형이 와버렸네요”

덕아웃 T 특특

▲마음 아파요 = 김선빈에게는 남의 일 같지 않은 부상이었다. 지난 25일 두산 투수 김명신이 넥센 김민식의 타구에 얼굴 좌측 부위를 맞으면서 광대뼈 세 곳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야구팬들 뿐만 아니라 함께 야구를 하는 이들에게도 안타깝고 아찔한 부상. KIA 내야수 김선빈에게는 특히 더 마음 아픈 부상이었다. 김선빈도 지난 2011년 넥센 외국인 선수 알드리지의 강습타구에 얼굴을 맞으면서 코뼈와 잇몸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적이 있다. 김선빈은 “한 번 더 맞는 다음은 마음으로 극복했었다. 많이 극복했지만 지금도 종종 겁이 난다. 사람들이 어제 부상 장면을 보내오기도 했는데 차마 못 보겠더라. 마음이 아프다”며 김명신의 쾌유를 빌었다.

▲기침 한 번 하더라 = 김기태 감독에게는 기특한 막내 선발이다. KIA 임기영은 25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네 번째 선발로 나서 6이닝 3실점의 피칭을 하며 시즌 3승째를 거뒀다. 임기영이 꼬박꼬박 6이닝 이상을 소화해주면서 팀은 임기영의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날 임기영이 승리 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초반에 위기도 있었고 투구수도 많았다. 이에 김기태 감독은 “표정관리도 잘하고 투구수가 초반에 많았는

데 침착하게 잘하더라. 그래도 중간에 힘들었는 지 기침 한번 하더라”며 웃음을 보였다.

▲지금도 얘기 같은데 = 김기태 감독 ‘이적생’ 이명기의 인연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감독이 SK에서 타격코치를 하고 있을 때 인연 고를 졸업한 이명기가 신인으로 입단했다. 김 감독은 26일 경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30대가 된 제자를 다시 만난 기분이 어떨까는 질문을 받았다. “지금도 얘기 같다”며 웃은 김 감독은 “신인 때 타격 폼이 예뻐서. 지금 우익수 자리에도 적용하고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우 형이 와 버렸네요 = 심동섭은 대표적인 삼성 켈러로 꼽힌다. 삼성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심동섭은 지난해와 달리 구위도 많이 좋아지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26일 삼성전에 앞서 심동섭은 “(최근)결과가 좋지 못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면서도 “지난해에 비해 공이 좋으니까 자신감 있게 공을 던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 시즌 아쉬움은 있다. 최형우의 이적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3년간 맞대결에서 최형우는 13타석에 서는 동안 심동섭에게 단 하나의 안타밖에 뽑지 못했다. 또 볼넷 2개가 있지만 삼진은 3개를 기록하는 등 심동섭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심동섭은 “형우 형이 우리 팀으로 와버렸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스타 2골 켈러 ‘더블’ 눈앞

EPL 1위 질주·FA컵 결승행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켈러가 혼자서 2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친 디에고 코스타의 원맨쇼를 앞세워 사우샘프턴에 대승을 거두고 우승 트로피를 향해 한 발짝 더 전진했다.

켈러는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사우샘프턴과 2016-2017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홈경기에서 4-2로 승리했다. 이로써 켈러는 승점 78을 따내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토트넘(승점 71)과 승점차를 8로 벌이면서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5경기를 남겨 놓은 켈러는 토트넘이 남은 6경기를 모두 이긴다고 가정할 때 4승을 따내면 우승을 확정한다.

남은 경기 대진순도 나쁘지 않다. 켈러는 에버턴(6위)-미들즈브러(19위)-웨스트브로미치(8위)-왓퍼드(10위)-선덜랜드(20위)와 차례로 정규리그 경기를 치른다.

토트넘은 크리스털 팰리스(12위)-아스널(7위)-웨스트햄(8위)-맨체스터 유나이티드(5위)-레스터시티(15위)-헐시티(17위) 등과 차례로 경기한다.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물론 비록 순위는 처져있지만 지난시즌 정규리그 챔피언 레스터시티까지 난적들을 차례로 상대해야 한다.

/연합뉴스